

미디어법 후폭풍... 정치 실종



24일 오전 국회를 떠나는 정세균 민주당대표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께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의원직 사퇴·장외투쟁 '초강경'
여권, 민생 돌보기·개각 등 '김빠기'

직권상정을 통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단독 처리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파국으로 치달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와 장외 투쟁 등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강화 행보와 함께 '불량 야당 퇴출론'을 내세우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재연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 실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부정투표와 불법 폭력에 의한 표결 처리된 언론악법은 무효"라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대표는 회견 직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회 대표실과 의원회관에서 철수해 내주부터 영등포 중앙당사에 출근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사퇴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전달했다. 또 지난 23일 사퇴를 선언한 최문순 의원에 이어 천정배 의원이 24일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원회관에서 철수했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민주당은

25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악법 날치기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광주시당도 이날 대회 참가를 위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과 구의원, 핵심당직자, 당원 400여명이 상경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 투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지만 강력한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8월 한 달 동안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언론악법 폐기 버스투어와 거리 홍보전, 1천만명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에 대해 '불량 야당'이라는 공세에 나서며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따른 후폭풍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손도 못댄 민생법안인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생현장 탐방에 나서는 등 8월 정국의 초점을 '민생 돌보기'로 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가 24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착공됐다.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익산역 광장에서 주최한 착공식에서 김상균 시설공단 부이사장, 이한수 익산시장,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등이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마침내 '첫삽'

익산서 착공식... 11조 투입 2017년까지 오송~목포 연결

광주와 서울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줄 호남고속철이 24일 전북 익산에서 착공됐다. <관련기사 2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익산역 광장에서 김상균 시설공단 부이사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2공구(익산역~황등역)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11조3천억 원이 투입될 호남고속철은 2017년까지 총복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km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14년까지 오송~광주

구간이 우선 개통되고, 광주~목포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17년에 완료된다. 총 5개 공구로 나뉜 1단계 사업 가운데 충청권 오송지역의 공사는 이미 지난 2월 말에 시작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14년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소요시간이 현재 2시간30분에서 1시간 41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단계 공사까지 끝나면 현재 3시간 가량 걸리는 서울~목포 구간을 1시간46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12년 걸린데 비해 호남고속철도의 1단계 사업이 5년 안에 완공 가능한 것은 평야지대가 많은데다 35m 길이의 상판을 3~5일 만에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PSM(Precast Span Method)'이라는 신공법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호남권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단계에서 25조 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17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중·고 이수 과목 줄인다

2011년 최대 5개 축소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하는 교과목 수가 최대 5과목 줄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까지로 1년 축소되고 고교 과정은 학생의 진로, 학교 자원에 따른 선택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회 술자문회의는 24일 서울 삼청동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의 개편안(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초등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고는 13과목에서 8과목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을 통합해 7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지극처럼 매학기, 매주에 나눠 수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학기에 몰아서 이수하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 교육과정은 현행 인문사회(국어·도덕·사회), 과학기술(수학·과학·기술·가정), 예체능(체육·음악·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교양) 등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영어·수학), 탐구(사회·과학), 예체능(체육·예술), 선택(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영역으로 재편성된다. /연합뉴스

1,500 뚫다

코스피 어제 1,502.59

코스피지수가 9일째 상승하며 1,500대에 올라섰다. 종가 기준으로 1,500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25일 1,501.63 이후 10개월만이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10포인트(0.41%) 오른 1,502.59에 거래를 마치면서 작년 8월21일의 1,512.59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 강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90원 오른 1,249.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여름 해당 패키지
예약/문의 228-4711-2
대표전화 228-8009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예보관의 하루 ▶ 3면 장수풍뎅이 키워볼까 ▶ 4면 나를 업그레이드...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캐빈 나 단독 선두 ▶ 14면